

제주특별자치도 '배드 파더스' 행정 논란

<양육비 주지 않는 아빠>

법적 규정 고교 무상교육 부담액 지원 안된다 올해 19억원 이어 내년 예산 29억도 "뚫주겠다" 도교육청 "일부 예산 포기 의사에도 요지부동"

제주특별자치도가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일명 '배드 파더스'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으로 정해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주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교육행정협의회'가 결렬됐다. 이 협의회는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예산, 정책 등 협력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기구다.

결렬된 이유는 제주도가 법적으로 규정된 고교 무상교육 부담액을 줄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내년도 무상교육 예산 240억원 중 12%인 29억원을 교육청에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 4월부터 교육청에 지원하는 '도세 전출금'을 법정 비율

인 3.6%보다 높은 5%로 상향, 매년 140~19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고교 무상교육에 사용하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도의 입장이 '초법적 요구'라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예산의 유연성이 있는 '비법정 전입금'의 경우는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지만, 고교 무상교육은 법으로 보장된 '법정 전입금'이기 때문에 논의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 말 고교에 올해 받아야 할 고교 무상교육 예산 19억원도 제주도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협의 과정에서 고교 무상교육 부담액을 낸다면 비법정 전입금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

는 입장도 밝혔지만 요지부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 부담액은 도세 전출비율과 전혀 별개의 것으로, 제주도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라며 "앞으로 협의의 진전이 없다면, 제주도가 고교 무상교육에 부담액을 낸다는 내용이 담긴 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제주교육예산의 이야기는 복잡하고 긴 얘기"라면서 "코로나19로 어마어마한 조정 사항이 발생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무리가 없게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일제잔재 청산 소극적... 조례 필요”

송창권·강성민 의원 공청회 “식민잔재 실태 전수조사부터”

제주도내 학교 현장에 대한 일제 식민잔재 실태 파악 등 청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분야를 넘어 제주지역의 식민잔재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될 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송창권(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강성민(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 의원으로 주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조례안 초안에는 도지사는 식민잔재 청산을 위해 도내 있는 식민잔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비롯해 청산 지원 사업과 홍보·교육, 연구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해 4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제주대 조성운 교수는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기관이 나서서 청산할 수 있는 일제잔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일제 식민잔재를 청산하는 과제를 추진하는 것은 결코 일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작업이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강성민 의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해 일제 식민 잔재 청산을 나가고 있는 것에 반해 제주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일제 식민 잔재에 대한 조사부터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도마련의 시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급성을 피력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제주의 경우에도 정확한 실태 조사 결과는 없지만 식민잔재가 적지 않게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송창권 의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례를 11월 회기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의 문서나 다름없다"면서 "일제 청산작업이 일회성이나 일시적 사업이 되지 않으려면 도청에 이를 전담할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송창권 의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례를 11월 회기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교체 나선다

이달부터 총 605대 보급

제주특별자치도는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에게 화재, 낙상, 건강상 응급상황 예방 등을 위해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605대를 이달부터 보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기존 보급돼 온

영he은 총 1144대 중 내구연한(5년) 초과로 노후 된 560대는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추가 보급된 대상자 45명에게는 신규 보급할 계획이다. 또 도는 내년까지 나머지 기존 장비(584대)도 차세대 장비로 전부 교체하고 취약한 독거노인이 서비스 대상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발굴해 신규대상자에게 2200대를 확

대 보급할 방침이다. 새로 보급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는 최신 ICT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태블릿 PC형태의 단말장치를 비롯해 최신 사양의 응급호출기, 활동량 감지기(심박·호흡) 등을 집안 구석구석에 설치하고 감지 센서들이 24시간 대상자의 활동을 확인한다. 위급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119와 지역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에 연계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됐다.

또 이를 관리하는 생활지원사의 휴대폰 앱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수시 모니터링하고 방문·상담으로 이어지는 휴먼터치 케어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비스대상자는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써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자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에 속하는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맞춤형복지서비스 대상자,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해당된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2020 제주애 빠지다 ⑧ 이현주 문화관광해설사



지난달 31일 이현주 문화관광해설사가 제주시 한경면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을 김창열미술관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신선희기자

“미술관 통해 또 다른 제주 알리고 싶다”

10년 전 귀농한 남편과 정착할 때 게스트하우스 등 운영 2018년 2월부터 해설사 활동 저지리 김창열미술관에 배치 ‘미술관 반나절 투어’ 등 계획

남편은 한라봉을 키웠고 그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했다. 당시 초등학교생이던 아이와 함께 부부가 제주 정착을 준비할 때부터 계획한 일이었다. 남편은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한라봉 농사를 짓지만 그는 새로운 생활을 경험하고 있다. 펜션까지 포함해 5년 동안 꾸렸던 숙박업을 접고 지금은 문화관광해설사가 됐다.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있는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에서 근무하는 이현주 문화관광해설사다.

월마다 바뀌는 전시 해설을 하기 위해 학예연구사가 제공하는 자료를 읽고, 도서관에서 가서 책도 뒤져보면서 미술에 대해 하나하나 배워가며 재미가 쏠린다. 제주에서 해설사를 하면서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찾게 된 것에 감사드려요." 게스트하우스나 펜션은 주로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곳이어서 제주에 살면서도 제주를 제대로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다. 그는 해설사로 발을 디딘 후 제주문화원, 제주도민재개발 등에서 개설하는 교육을 수강하며 4·3 등 제주가 걸어온 역사, 화산섬 자연 환경이 미친 영향 등을 들었고 '육지 사람들'에 대해 느끼는 '토박이 제주인' 등의 감정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다.

그가 미술관과 인연을 맺은 기간이 어느덧 3년을 향해가고 있다. 나 이 지긋한 관객들이 '물방울의 화가'를 통해 인생을 읽고 감정이입을 하는 모습은 그에게 또 다른 감동이다. 관객은 물론 도민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도 가까이서 지켜봤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미술관이 문을 닫고 해설도 중단되면서 쉬는 날이 많았다. 다행히 근래 미술관문이 다시 열렸지만 해설은 여전히 멈춰있다.

"어서 빨리 해설을 하며 관람객들과 만나고 싶다"는 그는 얼마 전 소규모 인원이 제주도립미술관, 김창열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을 둘러보는 '제주 미술관 반나절 투어'를 만들어 여행상품을 소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올려놨다. 영어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까지 갖고 있어서 국내를 넘어 해외 방문객들에게도 미술관 투어를 이어갈 꿈을 꾀다. 신선희기자 sunny@ihalla.com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높은 저장성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코코리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달팽이추출물 핵심 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유효를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영양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병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필리핀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생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AVER DUM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21세기 최첨단 비료 → 히토류가 들어있는 "이노페스" 탄생

특징

- ☆가스피해가 없다
- ☆시비가 간편하며 시간과 인건비 절약

이노페스 성분

원료명	효과
히토류	염류중화· 토양개량· 천연항균 작용
식이유황(MSM)	천연항균 작용
부식산	유기물 대체· 토양개량
벤토나이트	토양개량
고삼·백합추출물	토양해충기피
아미노산	천연질소질 공급
미량요소(Mg, B, Mo, Cu, Fe, Mn, Zn)	필수 미량요소 공급

기비(밀거름) 1,000량/포

사용방법

작목	사용량	작목	사용량
키위	20~25	노지작물	10~12
만감류	20~25	하우스 감귤	15~20

※ 다른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노페스

부리발달

당도 향상

신진대사 촉진

내병성 강화

생산성 증대

☆염류중화로 뿌리생육 발달

☆히토류 첨가로 작물의 기작 조절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